

영암 덕진면 선암·송내외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영암군(군수 우승희)의 덕진면 선암마을과 송내외마을이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됐다.

전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 관광 명소 조성 등을 취지로 2026년까지 100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농업 적합 △제조제 불사용 △생태환경 우수 △유기농 주민의식 뚜렷 △환경 친화적 건축물과 생활방식 등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후보다. 농가 10호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10ha, 유기농 비율 30% 이상 조건도 갖춰야 한다.

두 마을의 지정으로 영암군은 총 5곳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보유하게 됐다. 영암읍 망호정마을과 학산면 신안정마을은 지난 2018년에, 군서면 성지천마을은 지난해 지정됐다.

선암마을과 송내외마을은 앞으로 지정서 교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유기농 확대 생산·가공·유통·

체험 시설과 장비 우선권 ▲5억 원 규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4,000만 원 규모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신청 자격 등이다.

선암마을은 농가 15호, 유기농 면적 27.7ha, 유기농 100% 마을로 벼, 녹차, 콩 등에서 친환경 인증을 얻었다.

마을 중앙에는 1979년 '한국제다'에서 조성한 '덕진 녹차밭'이 있다. 이 유기농 녹차밭은 월출산국립공원의 풍광을 거느리고 있어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송내외마을은 농가 18호, 유기농 면적 30ha이다.

한옥 숙박시설인 용두레 도농교류센터도 있어서 유기농에서 관광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마을이다.

영암군은 지난날 두 마을의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류 심사과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김기철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의 덕진면 선암마을과 송내외마을이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됐다. 전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 관광 명소 조성 등을 취지로 2026년까지 100개소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암군 제공

무안군, 환경정화활동 펼쳐

무안군(군수 김산)과 푸른무안21협의회(상임의장 이남신)는 제28회 환경의 날을 맞아 최근 무안읍과 삼향읍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제27차 UN 총회에서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하면서 각국에 환경보전행사 실시를 권고했고, 우리나라는 1996년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무안군과 푸른무안21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무안읍 무안천 일대와 삼향읍 주요 도로변의 담배꽂초, 폐플라스틱, 비닐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산 무안군수는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운동을 벌여 무안의 깨끗한 이미지 확산시키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군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17개 품목, 오는 14~16일 공급업체 공개 모집

강진군에 향우, 외지인 등 고향사랑기부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이 강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에게 정성이 담긴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17개 답례품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고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추가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임·수산물 3개(버섯, 장어, 새우) ▲가공식품 10개(장류, 조청, 전통주, 차류, 떡류, 제빵류, 간편 매생이, 귀리 웨이크, 여주 가공식품, 버섯 가공식품) ▲공예·산품 2개(청자소품, 방향제) ▲관광 서비스 2개(청자촌 오토 캠핑장 이용권, 가우도 즐기기 이용권)이다.

모집 대상은 접수일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강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선정 품목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임·수산물, 가공식품, 공예(산)품의 경우, 강진산 원재료를 포함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6일 까지로,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홈페이지(g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430-3464~5)으로 하면 된다.

강진군은 6월 중 강진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새로운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매력 있고 차별화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목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 수산물 수입업체·유통·소매업체 등 126개소 대상

목포시와 전남도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목포시 일대의 수산물 수입업체와 유통·소매업체 등 1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도와 합동으로 지난 2일 진행된 점검은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될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개 품목)에 대한 지도와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시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박성태 기자

신안 청소년 주민참여위원 예산학교 운영

신안군은 청소년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2023년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15명을 대상

으로 실시했으며, ▲신안군 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기능과 역할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군은 올해부터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받아 청소년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 청소년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의식을 갖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청소년들이 성장해서도 신안군을 생각하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근 기자

함평군, 음식문화 개선 추진

함평군 보건소가 안전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음식 문화를 정착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실시하는 문화 운동이다.

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정제, 위생모 등 7개 품목의 위생물품을 지원했다. 또, 모범업소,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업소를 대상으로 살균수저통과 일회용 앞치마, 위생마스크, 소형찬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확대 추진한다. 업소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소별 위생등급제를 확대 지정해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